

■ 나해·제2293호
연중 제28주일 · 군인 주일
2024년 10월 13일

춘천주보



제57회
군인 주일
포스터

목 차

- 02 말씀의 향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훈련
- 03 사제 단상
영적인 삶으로의 초대
-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²⁸
- 05 담화 요약
2024년 제57회 군인 주일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지혜 7,7-11

화답송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해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히브 4,12-13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르 10,17-30 <또는 10,17-27>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원선희 토마스 신부
군종-육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훈련



23년 3월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로 훈련받으러 간 뒤로 어느덧 1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3개월간 훈련을 받은 후 부임한 곳은 신기하게도 춘천교구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 출신 본당인 교동 성당과도 가까운 22사단 성당, 강원도 고성의 육군 동해 성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크게 낯섬을 느끼지 않으며 군종 생활을 시작하였고, 어려운 순간마다 춘천교구 내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국방부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 삶에서 가장 빠른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군종 사제로 활동하며 다시금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된 부분 중 하나는 군인분들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한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군인분들께서 열심하시고 멋진 모습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병사 생활할 때 느꼈던 부분과는 다르게 군종 신부로서 더 밀접히 군인분들과 지내다 보니, 정말 많은 군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군인분들이 훈련하지 않으신다면, 혹시나 발생할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어려울 것임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군인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더욱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군인분들께서 군인이라는 신분에 맞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느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또한 그에 걸맞은 신분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부자가 놓치고 있던 부분은 재물을 움켜쥐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재물을 움켜쥐고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이에게 마음을 향하게 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양한 부분을 성찰해 보고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며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피조물을 통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 삶의 본질이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 안에서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1코린 3,1-5 참조) 당시에 코린토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매년 총장배 축구 대회가 있었다. 신학생들에게 총장배 축구 대회는 큰 축제 중 하나이다. 1학년부터 부제 반까지 서로 경기하는데 1등을 한 학년이 우승 트로피를 받는다. 정확히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학년도 한 번 우승했다. 그리고 받은 그 트로피에 막걸리를 채우고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그 막걸리를 마셨는데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총장배 축구 대회가 시작되면 선수들은 우승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에서 뛰다.

마치 월드컵이 시작되면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듯이, 선수가 아닌 학생들도 자신의 학년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월드컵보다 더 열심히 응원한다. 그렇게 분위기가 뜨겁다 보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 중에 부상자가 생기고 때로는 응원하는 학년 간에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총장배 축구 대회 결승이 있는 날 새벽 미사 때 그날 결승전을 하는 부제가 강론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그 부제는 “오늘 결승전이 있는데 ‘영적인 축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제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육적인 축구’가 아닌 ‘영적인 축구’를 할 때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결승전을 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강론을 듣는 학생 모두를 ‘영적인 삶으로 초대’하였다. 그날 경기는 정말 ‘영적인 축구’였다. 넘어지면 상대방 선수가 먼저 다가와 일으켜주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서로 박수 쳐 주면서 참 아름답게 경기가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영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삶이란 성령께서 함께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 나도 요즘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자주 생각한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참 기분이 좋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영적인 삶’을 자주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길 소망해 본다.

제철 음식, 우리 농산물 구매하기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그리스도의 세례>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²⁸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 - 주님 공현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제 출신 본당인 철원 성당의 ‘주보(명)’ (Titulus, 主保名)는 ‘주님 공현’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3월에 성당 명義와 주보명에 관한 지침이 나오면서 저도 그동안 헛갈리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기도 했었는데, 모든 성당은 고유한 주보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본당의 주보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당의 수호자(수호성인)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당의 이름인 주보는 성인뿐 아니라 하느님의 위격들도 사용할 수 있기에 죽림동 성당의 ‘예수 성심’이나 철원 성당의 ‘주님 공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1~2학년 시절 주임 신부님께서서는 성당 마당이나 식당에서 교우들과의 술자리를 자주 하셨었는데, 자주 농담 삼아 ‘우리 성당은 주님 공현 성당이니까 주(酒)님이 늘 드러나셔야 한다’며 술을 권하시곤 하셨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설명하는 주님 공현은 단순히 동방 박사의 경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냄’의 의미를 가진 **주님 공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것”**(가톨릭 교회 교리서 528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에 바치는 성무일도 기도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적으로 이날을 기념하였도다. 별이 박사들을 구유에로 인도하였고, 혼인 잔치에서 물이 술로 변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도다”(제2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 곧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더불어 **주님의 세례**와 **카나에서의 첫 기적** 또한 주님 공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유다인의 왕,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 경배함으로써,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리던 것들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음이 드러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528항 참조).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사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삶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나자렛에서의 감추어진 생활(가톨릭 교회 교리서 533항 참조)을 지나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마태 3,13-17 참조)이라는 선포가 들려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드러나는 이 세례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느님 아들이로서 드러난 예수님의 공현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53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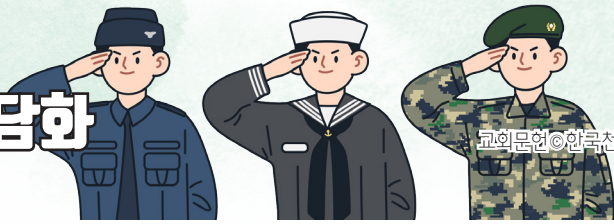
예수님의 공생활 중 삼위께서 모두 나타나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거룩한 변모입니다. 세례 때와 같이 성부께서는 목소리로, 성자께서는 거룩하게 변모한 인간으로, 성령께서는 빛나는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555항).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변모 사건 안에서 당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따라 수난과 부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225~245쪽, 522~570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냉장고 정기적으로 정리하기

2024년 제57회 군인 주일 담화



▲ 담화 원문 보기
교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오늘은 제57회 군인 주일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군종신부의 사목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주교님과 신부님,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기도를 바치시며 오천 원, 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신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젊음은 예수님과 세상을 위한 선물”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파견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차기 개최지로 한국의 서울을 지정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청년들의 신앙 부흥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리라 희망합니다.

교황님의 청년들에 대한 사랑은 지대합니다. 서울 WYD가 개최될 2027년에는 교황님께서 아흔을 넘기신 초고령의 연세가 되시겠지만, 그분은 평화의 사도로서 열정을 지니시고 한국 땅을 밟으실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지난 7월 파라과이에서 열린 청소년 사도직 지도자 회의에 보내신 메시지에서 ‘젊음은 예수님과 세상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효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확보 등 여러 이유로, 성당에 나오거나 특히 세례성사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수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세상 끝까지 퍼뜨려라.” (이사 48,20)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이 호전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신앙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오직 한 분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젊은 병사들이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군인을 위한 기도’를 자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심입니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자녀, 친지,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군대와 병사들을 보아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젊은이 신앙 부흥의 전환점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힘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신자임에도 그 자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학업을 핑계로 냉담하였던 병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WYD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직 신앙이 없는 이들도 교회는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피를 공급하는 군종교구”

군종신부들은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미사와 성사 집전을 합니다. 일반 교구에 비해 교리교육 기간은 짧지만,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1코린 3,6)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제대 후에 각 교구, 각 본당으로 돌아갑니다. 군종교구에 남아있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종교구는 한국 천주교회에 젊은 피를 공급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군종신부들은 전후방 각지를 돌며 사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시편 33,5)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의지하며 힘을 내어 군 사목과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시금 신자 여러분의 군종교구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안에 행복하시기를, 103명의 군종신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군인 주일에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봉평 본당 사목 방문
10. 18.(금)~20.(주일)

봉평 본당 10주년 미사
10. 19.(토)

춘천·원주 사제 체육대회
10. 21.(월) 13:30,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사제평의회·참사회
10. 22.(화) 10시, 가톨릭회관

사제 연수
10. 22.(화)~25.(금) 가톨릭회관

견진성사
만천 본당: 10. 26.(토) 18시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0. 14.(월) **갈리스토**
원훈 신부

10. 18.(금) **김윤희 루카 주교**

오남성 후베르토 신부 18주기



생년월일 : 1915. 3. 6.
서 품 일 : 1938. 12. 21.
선 종 일 : 2006. 10. 25.

춘천교구 군종후원회 회원 모집
군인들에게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활기를!
창립미사: 10. 13.(주일) 10:30, 효자동 성당
지도신부: 현광섭 프란치스코 신부(효자동성당)
후원방법: 다음카페 '천주교춘천교구군종후원회'
가입 ▶ 가입신청서 다운받아 가입 및 후원신청
자세한 사항은 다음카페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미사
10. 15.(화) 11시, 한살강당

청년성서모임 봉사자 교육
10. 13.(주일) 14~17시, 교구청 대회의실
대상: 현 그룹봉사자와 그룹봉사를 희망하는자
준비물: 도서 'YOUCAT', 미사 준비
(주일 미사 있습니다)
☎ 033-240-6076 춘천청년성서모임 담당

10월 카나 혼인 강좌
10. 19.(토) 18:30, 입암 성당,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10월 예비 신학생 모임
10. 27.(주일) 14시, 춘천·남춘천: 퇴계 성당
중부: 홍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교동 성당

대입 수능 수험생 부모를 위한 피정
11. 9.(토)~10.(주일) 갯세마니 피정의 집
제목: "제 기도가 당신 앞까지 이르게 하소서"(시편88,3)
접수: 10. 24.(목)까지 선착순 20명, 7만원
☎ 033-461-4243

춘천 교정봉사회 봉사자 모집
남사: 매 (목) 15시
여사: 마지막 (화) 15시
☎ 033-264-5011 한삶의집

춘천 성심병원 원목실
위치: 본관 10층
입원 시 원목실로 연락 주세요.
☎ 033-240-5200, 010-4164-4610

강원대학교병원 원목실
위치: 어린이병동 지하 1층
☎ 033-258-9487, 010-2690-8790

청년 찬양 성시간 PEACE
10. 18.(금) 20시, 한살강당

사랑의 기쁜 청년 연수
10. 19.(토) 한삶의 집

레지아 5차 단원 교육
10. 19.(토) 13시, 스무썬 성당

떼제기도(Taizé)
매주 (화) 20:30, 교구청 3층 경당
누구나 참여 가능 / 찬양, 말씀, 침묵 안에
서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
☎ 010-5540-5551

갯세마니 가을 동산 음악 피정
11. 1.(금) 18:30, 갯세마니 피정의 집
주제: 일어나 아버지께 (루카15,18)
출연: 메타노이아(김정식 로제리오, 테너 송봉섭) 등
참가비: 없음, 자유롭게 후원 가능합니다!
준비물: 겨울 점퍼, 무릎 담요

춘천교구 성령새신 금요기도회
10. 18.(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강의 및 미사: 20:30, 고봉연 요셉 신부(포천
이벽 순교성지) /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
센터 앞 ☎ 010-2962-4051

가톨릭회관 미사 안내
평일 미사: 월·화·목 8:30, 수 19:30
주일 미사: 17시 / 미사는 회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사 전례와 반주 봉사
자 모집합니다. ☎ 033-245-7300

영어 미사 The English Mass
매 (주일) 16시, 죽림동 주교좌 성당
Every Sunday 4.p.m
Place: Jungnim-dong Catholic Church.
☎ 033-264-5011 한삶의집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춘천 소양로 수도원	010-7427-4627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7197-1390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0. 19.(토) 14시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짓다

속초 나드리 여행사

일본 히로리, 상고도, 나가사키 10/28
날짜확정 4박 5일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본 당 알 림

10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10. 21.(월) 13~16시, 임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
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박 토마스 주교 30주기 미사

10. 30.(수) 11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주교님의 헌신과 사목적 열성을 기억하며 많
은 참석을 바랍니다.

죽림동성당 “주일밤미사·평일낮미사”

주일 밤: 매 (주일) 21시
평일 낮: 11시 연중무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춘천교구 무료급식소 ‘한살밥집’ 운영안내

장소: 죽림동 주교좌 성당 식당
운영: 매주 월, 수, 토 11~13시 30분

신협 131-021-628060 (사회
복지회한살밥집)
국민 301201-04-415579 (사
회복지법인춘천교구사회복지회)

[ARS후원] 전화 한통 1만원 후원
060-700-5020 (오병이어)

봉사자 모집

월, 수, 토 봉사 가능
※ 미리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 조정
하여 봉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 033-243-4545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인 준 시 설

죽림동주교좌성당부설 성심유치원 원아 모집
연령: (만5세)2019년생~(만3세) 2021년생까지
가톨릭신자우선모집기간: 11. 1.(금)~5.(화)
일반모집기간: 11. 19.(화)~22.(금) 18시까지
홈페이지: www.sungsimkids.co.kr
☎ 010-7116-7443, 033-255-7443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직원 모집

조리원 1명, 작업지도원 1명(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가능)
필요서류: cafe.daum.net/fvjhouse 에서
확인, kktots111@hanmail.net로 제출
☎ 031-589-0210 가평꽃동네 환희의집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분야: 조리원 1명, 생활재활교사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주민번호, 사진, 추천인, 종교 기재금지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성골롬반의집 요양보호사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colum2004@
hanmail.net
☎ 033-262-0935~6 팩스 262-0937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 033-458-9422 몬피노인요양원

춘천시립양로원 입소 어르신 모집

국민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일상 생활에 지
장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 033-262-0303

일 반 알 림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 11. 1.(금)~9.(토)/12. 6.(금)~14.(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착한목자수녀회 “잠시멈춤” 청년기도모임

10. 21.(월) 19:30, 한살의 집 1층(거두리)
대상: 남, 여 청년(미혼)
☎ 010-7197-1390 카톨릭채널 착한목자수녀회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12. 3.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 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45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 가톨릭춘천신협 ◆

건전한 경영과 운영을 통하여
꾸준히 교구 및 지역사회에



후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불어 저희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지점(거두리)에도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 033-255-6742
지점 033-262-6742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이보람 가브리엘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군하 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705-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홍승후 켄마

속초 동명향(영금정)

바다축제(코다리조림)
대구목살, 생선 모든
코다리, 가오리 조림(전문)
위치: 영금정로 20(동명동1-83)
☎ 637-5070, 010-3756-9380
조칠성 베드로·이봉자 벨라데타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이은경 테오도라

춘천즐거운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모집(장
기요양등급신청 무료 대환)/작장에 계신 시간
동안 안전하게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
☎ 010-3375-4977 김수정 레나